

「복지피난소」 성립의 경위와 유메카제기금의 제언

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곤도 마유미(権藤真由美)

1. 목적

- 한신아와지 대지진(고베대지진) 이후 복지피난소에 관한 대처를 살펴 본다.
- 「복지피난소」가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·장애인만을 모아 수용하는 장소화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.

2. 방법

문헌조사

3. 「복지피난소」 성립의 경위

1986 (S61)

재해약자

- 국토청은 도도부현(都道府県), 시정촌(市町村)이 책정하는 지역방재계획에 재해약자에 대한 명확한 피난대책을 강구할 방침을 확고히 했다.

1991 (H3)

- 「재해약자」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『방재백서(防災白書)1991』

1995 (H7) 한신·아와지대지진 재해관련사(災害関連死)
「재해대책기본법」 개정

- 재해관련사(死)의 심각성이 인식되다.
- 후생성이 재해대책 매뉴얼을 작성.

1997 (H9)

「복지피난소」 처음 등장

- 후생성은 「재해구조매뉴얼」을 정리해 사회복지시설을 전용 피난소로 하는 「복지피난소」...검토중(1997년 1월18일 요미우리신문(読売新聞))

1999 (H11) 재해약자관련 시설의 방재대책에 관한 조사

재해약자관련시설

2004 (H16) 니가타현(新潟)현 츠에츠(中越) 지진 재해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(災害時要援護者)
재해시요원호자) · 니가타현은 특별요양노인홈 등 복지시설을 「복지피난소」로 인정(2004년 10월 30일 요미우리신문)

2005 (H17) 재해시 지원을 요하는 사람에 대한 피난지원 가이드라인

- 재해약자에서 재해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

2006 (H18) 피난시 지원을 요하는 사람을 위한 피난지원 가이드라인 개정

2007 (H19) 니가타현 츠에츠오키(中越沖) 지진 복지피난소

- 츠에츠 지역의 지진을 교훈삼아 복지피난소를 개설 (9개소) 지원 (2011년 9월 1일 고베신문(神戸新聞))

2007 (H19.12) 자연재해 「희생자 제로」를 목적으로 하는 「피난지원안의 전체 계획」 책정을 2009년(H21) 목표로 삼음.

- 전국 지방자치체 중 4분의 1이 「복지피난소」를 지정(2011년 12월 6일 마이니치신문(毎日))

2008 (H20.6) 복지피난소 설치·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

- 사회복지시설과 「복지피난소」 간에 협정을 맺는 시(市)가 더욱 급증

2009 (H21) 복지피난소 설치에 관한 후생노동성 조사

2011 (H23.3.11) 동일본대지진

- 14시46분경, 진원지 산리쿠(三陸) 해안 M9.0의 지진이 발생. 복지시설 등과 협정을 맺은 시정촌은 이와테 5, 미야기 14, 후쿠시마 11 (요미우리신문 도쿄조간)
- 2010년 3월 31일 현재...동북지역의 세 현에는 미야기현 177개소, 이와테현 74개소, 후쿠시마현 37개소가 복지피난소에 대한 사전 지정을 받고 있다(중 후생노동위원회(衆厚生労働委員会) 12호)

4. 유메카제기금으로부터의 제언

- 재해지역에 대한 대응 구조와 주민 주체의 매뉴얼 만들기에 대한 제언 (유메카제기금(ゆめ風基金), 2006)
- (복지피난소에 대한 제안은) 당사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행정에 대한 호소임과 동시에 당사자와 지원자에 대한 계발 (2006년 11월 24일 마이니치신문)
- 원래는 지역 사람들과 같은 피난소에 대피하는 것이 최고. 「복지피난소」는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공간임. 가능한 한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대피소에서 장애인에 대한 대응을 해 주었으면 (2006년11월26일 아사히신문)
- 「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」...지내기 편한 시설을 선택해서 동료와 함께 자치단체에 신청하여, 지정을 받으면 행정측에서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(2007년10월17일 아사히신문)
- 몸상태나 증상에 따라 공동 생활이 곤란할 경우는 안심하고 피난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기구나 침대등 필요한 설비를 갖춘 복지환경을 확보한다 (유메카제기금, 2010)

5. 고찰

- ① 「복지피난소」에 격리되어 「재해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」으로 위치 지워져 버린 장애인이나, 고령자 등이 지역생활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.
- ② 누구라도 피난할 수 있는 피난소, 본인의 상태에 맞춰 전문적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.
- ③ 각 지역의 「자치력(自治力)」을 활성화 시킨다.
- ④ 그동안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재해시의 과제들을 재고하여, 과제로부터 나온 해결 방안들을 살려 나가야 한다.